

- 信 바르게 믿고
- 解 바르게 알고
- 行 바르게 실천하고
- 證 바르게 깨닫자



金剛會報



金剛禪院 <http://www.geumgang.org> E-mail: keumgang-sw@hanmail.net 불기2559년(서기2015년) 6월 25일 (목요일) [제115호]

발행처 :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 발행인 : 혜거스님(안동수) / 발행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82길 11 삼우빌딩 405호(135-243) / 편집 : 금강선원 편집부 / TEL : 445-8484 FAX : 445-8043 / 등록번호 : 서울라-10888



수능 100일기도 입재
8월 4일(화) 오전 9시 20분

금강선원에서는 2016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을 맞이하여 오는 8월 4일(화) 오전 9시 20분 6층 기도법당에서 수능 100일기도를 입재합니다.
기도는 발원을 세우고 이를 이루고자 자신을 가다듬고 정진하는 과정이며, 부처님 앞에서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이자 큰 원을 세우는 일입니다.
수능 100일기도는 자녀를 위한 간절한 염원으로 학부모들은 날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려놓고 참회합니다. 하루하루 기도가 계속될수록 스스로의 업이 소멸되고, 세상은 법을 깨닫게 되어 자

녀 때문에 시작한 기도가 자녀 덕분에 회향하게 됩니다.
11월 11일(수) 회향하는 날까지 청비스님의 집전으로 하루 2번 진행됩니다.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과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기도시간 : 오전 05:00, 오전 09:20

제10기 청소년 기초참선프로그램 개강

금강선원은 오는 7월 18일(토) 오후 2시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제10기 청소년 기초참선반을 개강합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청소년 인성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금강선원 청소년 참선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참된 인격자로 키우기 위한 명상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집중력과 지구력, 자기조절능력을 길러 청소년들을 올바른 인격과 도덕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로 길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잠재능력을 발견할 뿐 아니라 고민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집중력이 향상되어 학업성취도가 높아집니다.
좌선, 이완명상, 자비관수행, 잔상훈련 등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자신의 진짜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름방학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학생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제10기 청소년 기초참선프로그램 일정
- ▶ 일 정 : 7월 18일(토)~9월 6일(일) 8주 15회기
- ▶ 템플스테이 : 8월 1일(토)~2일(일)
- ▶ 시 간 :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시~5시(3시간)
- ▶ 장 소 : 탄허기념박물관
- ▶ 참여대상 :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 참가비 : 1인당 30만원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ipc445@hanmail.net)
- ▶ 문 의 : 금강선원 02-445-8484, 탄허기념박물관 02-445-8486

스님들을 위한 『임제록』 특강 개설

8월 20일(목) 오후 6시

오는 8월 20일(목) 오후 6시 대법당에서 스님들을 위한 『임제록』 특강이 시작됩니다. 금강선원이 서울 및 수도권 종단 스님들을 위한 조계종 교육인증 교육기

관으로 선정되어 진행되는 교육원 인증 교육프로그램으로서 9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6회로 진행됩니다. 가장 뛰어난 선수행의 지침서로 알려져 있는 『임

제록』은 당나라 임제선사의 설법집으로서, 2014년 영가집 특강에 이어 진행되는 혜거 큰스님의 두 번째 특강입니다. 스님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 일 시 : 7월 4일(토) 오후 2시
▶ 장 소 : 금강선원 대법당(4층)

제26기 기초참선반 수료식 6월 29일(월) 오후 3시
제40기 선하불교대학 졸업식 7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

상반기 수계식
▶ 일 시 : 7월 5일(일) 오후 13:00
▶ 장 소 : 금강선원 대법당

을미년 백중 7일 지장기도 봉행

금강선원에서는 우란분절(음.7월 15일)을 맞이하여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백중 7일 지장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망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진정한 효심과 공덕의 시간이 될 이번 지장기도에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바랍니다.

- ▶ 입 재 : 2015년 8월 22일(토) 오전 10시 30분
- ▶ 회 향 : 2015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서 문 (序文)

『원각경 서문』 강설 ③



여러분을 잘 살게 해주는 경전입니다.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不生不滅커니 豈四山之可耨며 離性離相커니 奚五色之能盲이리오.

멀하지도 생하지도 않느니
어떻게 사산이 해칠 수 있으며
성도 상도 떠났으니
어찌 오색이 눈을 멀게 할 수 있겠는가?

불멸불생不滅不生커니. 마음은 멀하지도 않고 생하지도 않으니. 마음은 내가 어찌하려고 해서 생기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지요.

개사산지가해豈四山之可耨며. 사산이 어찌 나를 해할 수 있으며. 사산四山은 생로병사를 각각 큰 산에 비유한 것입니다. 즉 염라대왕이 나를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 쉽게 들어오지 않으시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가야할 길이 이미 정해져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락아정하는 나는 안 가지요. 왜? 오지 않았는데 갈 게 있나요? 지금 이 말을 통철하게 깨닫지 못하더라도, 반복해서 많이 들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깨닫고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고 깨달으면 말할 것 없이 좋은 것이고, 못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 생각이 떠오르기만 해도 됩니다. 가다가 나서 지장보살님에게 의탁하기로 맘을 먹고 지장보살을 일심으로 정성스레 염하면 몇 초 안에 삼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다가 없이 기도하면 입으로는 지장보살을 염해도 자식 생각, 지난 생각을 하니 허사가 되는 거지요. 영원불멸하는 상락아정의 아랫은 염라대왕도 어찌 못해요. 이 도리를 깨달은 사람은 생로병사에서 초월한 사람이 되지요.

해오색지능맹奚五色之能盲이리오. 어찌 오색이 눈을 멀게 할 수 있겠는가? 빛깔의 기분이 다섯 가지인 건 아시죠? 청·황·백·적·흑인데, 일체만물은 이

다섯 가지 색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다섯 가지 색깔을 이리 섞으면 이리 달라지고, 저리 섞으면 저리 달라져서 수만 가지 색이 나오지만 기본 색은 다섯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색깔에 얼마나 많이 속고 사는지 몰라요.

색깔을 상황으로 바꾸어 보면, 빨간 상황에 속고, 노란 상황에 속고,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상황에 늘 속아요. 우리의 여러 상황을 봅시다. 예를 들어 나를 칭찬하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 이런 것도 모두 상황이 되죠? 누가 나를 칭찬하면 벌써 기분이 좋아지고, 나를 비방하면 기분이 나빠져서 입꼬리가 내려가지요? 상황에 내가 움직인 겁니다. 색깔은 상황을 달리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글은 현실 상황이 어떤 것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동요되지 않으니까 눈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문장을 정리해보면, 멀하지도 않고 생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생로병사가 나를 해칠 수 있으며, 성도 여의고 상도 여의었는데 어찌 오색이 내 눈을 멀게 할 수 있겠는가? 즉 나를 흔들 수 있겠는가? 입니다.

處生死流하야는 驪珠獨耀於滄海요 踞涅槃岸하야는 桂輪孤朗於碧天하니

생사의 흐름에 처해서는
여의주는 홀로 푸른 바다에서 빛나고
열반의 언덕에 걸터앉으니
달은 푸른 하늘에 외로이 밝다.

처생사류處生死流하야는. 생사의 세계에 처해서는. 또는 생사의 세계에서는.

여주독요어창해驪珠獨耀於滄海요. 여주가 푸른 바다에 홀로 빛나고, 여의 여주는 여의주이고, 부처님의 법신을 말합니다. 인도나 중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여의주를 좋아해요. 인도에서는 여의주보다는 마니주라고 하고 마니주는 다이아몬드에 비유해서 씁니다. 다이아몬드는 본래 빛깔이 없지요. 다이아몬드를 파란 천위에 놓고 보면 파란 색으로 보이고, 빨간 천위에 놓고 보면 빨간 색으로 보이고, 어느 곳에 놓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보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다이아몬드에 색깔이 있는 줄 알아요. 중생들이 다이아몬드에 색깔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생로병사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에 색깔이 없듯이 생로병사도 본래 없는 것입니다. 생로병사가 본래 없듯이, 다이아몬드도 상황에 따라 여러 색깔을 내놓을 뿐입니다. 우리 삶도 상황 상황에 놓이는 것 뿐이거든요. 우리가 경계에 끌려 다닐 뿐인데 본래 있는 것처럼 느끼고 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마음자리를 공부한 사람은 죽고 사는 세계에 살면서도 여의주가 홀로 창해에서 빛나듯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여의주를 만사를 해결할 수 있는 신비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 여의주가 그냥 구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걸 가르친 게 불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의주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의주 하나 구하려고 엄청 애를 쓰지요. 여의주 구하려고 신에게 기도하며 매달리고, 절에서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뭘 달라고 한다면 여의주를 밖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떨어내고 떨어내서 관세음보살이 되어서 내 속의 여의주를 찾고 닦아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감당 할 수 없는 노장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어른들이 요즘 수행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비우고 닦으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모두 커다란 여의주를 품고 계셨던 분들이셨어요. 이렇게 여의주는 밖에서 억겁을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여의주가 드러나도록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

창해는 푸른 바다라고 해석하지만 여기서는 온 세상을 표현한 거지요. 내 안의 여의주가 온 세상에 번쩍번쩍 빛난다는 거예요.

거열반안踞涅槃岸하야는. 열반의 언덕에 걸터앉아서는. 열반의 세계에 걸터앉는 것은 공부가 끝난 것이지요. 계륵고랑어벽천桂輪孤朗於碧天하니. 달은 푸른 하늘에 외로이 빛나니. 계륵은 달이고, 랑槃은 밝다, 환하다는 뜻입니다.

윗글은, 생사의 흐름 속에 처해서는 여의주처럼 넓은 바다에서 홀로 빛나고, 공부가 끝나고 나서는 밝은 달처럼 푸른 하늘에 외로이 빛나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에 우리 금강선원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어떤 사암寺庵보다도 장엄하고 원만하게 거행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한 축하하고 싶습니다. 이번 연등회를 통해서 대내외에 우리 선원의 저력을 보여주었고 선원의 역량을 한껏 드러낸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각자 자신의 소임을 묵묵히 실천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성공을 가져다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연등회가 오래도록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예전같이 한 지역이나 나라에만 머물고 사는 시대가 아니고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왕래가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여러 질병이나 미물들이 들어와서 건강과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동지역에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없던 균이 들어와서 온 나라가 크게 걱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고, 그 건강은 또한 가족과 주변에 편안함을 보시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깊은 수행정진을 하려면 건강한 육신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항상 내 안을 들여다보고 아울러 주변 만물을 관찰하고 보살피는 깨어있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각경은

呑虛大宗師遺墨選



1280 x 300mm

天向一中分造化 천향일중분조화
人於心上起經綸 인어심상기경륜

하늘은 일리(태극)에서 조화가 나뉘어지고
사람은 마음에서 온갖 경륜 일어나네

<소강절 - 관역 3>

표절 剽竊

표절(剽竊)이란 다른 사람이 쓴 문
학작품이나 학술논문, 또는 기타 각
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
거나 아니면 관념을 모방하면서, 마
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표절은 미술계에서도 공공연히 벌
어지는 일련의 사건입니다. 각종 미술
대회나 큰 국전 행사뿐만 아니라 세
계적인 비엔날레에서도 예술 거장들
의 표절 시비는 끊임없이 생깁니다.

20세기 최고의 예술가였던 피카
소도 자신만의 화풍을 일구기까지
앙리 마티스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
하였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라는 말이 있듯이 제2의 창조라 일
컬어지는 '모방' 을 통해 피카소는
새로운 자신만의 화풍을 완성하였
으며, 마티스의 비현실적 색채, 왜곡
된 선의 형태, 명암법 등도 모방하였
습니다.

그러나 피카소가 일개 모방이나
표절 화가로 남지 않고, 세기를 넘나
들며 미술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었
던 것은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현대 미술의 역사를 새롭게 썼기 때
문입니다.

피카소 덕분에 현대 미술 영역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표절의
한 방편으로 패러디(Parody)라는
새로운 형식이 생겼고, 패러디로 인
해 많은 작품들이 더욱 더 빛을 발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몇 해 전, 발레 작품 '백조의 호
수' 를 패러디 한 매튜 본(Matthew
Bourne)의 '백조의 호수' 는 국내외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여성만의 영
역이었던 발레에 근육이 튀어나온 남
성 무용수로 패러디 하여, 흰 백조를
연상시키는 웃을 입혀 무대를 꽉 채웠
을 때 그 신선한 패러디는 또 하나의
새로운 예술로 완성 되었습니다.

박물관 난상

무릇 표절이나 모방이 단지 표절이
나 모방에 그치지 않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창조적 해체 작업 후에 새
로운 것이 결합되어 새로운 '패러다
임' 으로 완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유명 작가의 표절 사건으로
문학계가 떠들썩합니다. '표절은 7
시에 한다네' 라는 웃음 섞인 패러
디물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기도 합니
다. 어릴 때는 '부모처럼 살지 않겠
다' 라고 했지만, 어느 덧 부모를 조
금씩 닮아가고 있음에 놀란 적이 있
을 것입니다. 예술이든 인생이든 한
날 패러디 물에 그치지 말고, 하루하
루 정진하는 우리의 삶이 창조적 결
합에 의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완성
되고 행동으로 현출(現出) 될 때 예
술같이 살았다 할 것입니다.

글 / 최미금 학예사

박물관 홈페이지 전면 개편

탄허기념박물관 홈페이지를 전면 개
편합니다. 홈페이지 이용시 보다 편
리하게 많은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업그레이
드 됩니다. 박물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관람 및 대관예약 기능
과 봉사신청 기능을 넣었습니다. 전
면에 동영상 삽입하여, 사이버 전
시관 기능과 박물관 동선안내가 가
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알려야 하는 상황
들에 대해서는 팝업기능을 활용하
여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탄허기념박물관 홈페이지
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알찬 소식 드

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6월 20일(토) Dovol(두볼)-1365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와 여성가족
부가 함께 하는 자원봉사 활동 사
이트에서 탄허기념박물관 자원 봉
사로 5명의 학생들이 봉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박물관 교육사의 전시 해설과, 전
시 해설 시나리오를 읽고 박물관에
관한 궁금증을 풀고, 관람하시는
방문객에게 관람안내를 하는 등 성
실하게 봉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자
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박물관의 주
차장에서 비품들을 정리 하였습니

다. 학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부탁
드립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회의 개최

6월 11일(목) 오후 12시부터 박물관
보광명전에서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용타스님(회
장), 인경스님(수석부회장), 헤거스님
등을 비롯한 많은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박물관 소식

-2015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응답하라1959'
교육기간 : 3월~10월
교육시간 : 화요일~금요일 오전10:00~14:20/오후14:00~16:20
교육대상 : 초·중·고등학생 단체 (30명 내외),
*문화가 있는 날은 가족단위 참여가능
신청방법 : http://www.museumonroad.org
-6월01일~6월02일 : 하안거결제일 및 참선반집중수행
-6월11일 :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회의 오후12:00 ~18:00
-6월20일 : 두볼 청소년자원봉사 30명, 참선반 수업

□ 연중진행 프로그램
- 문화가 있는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관람안내 및 오시는 길

- ▶ 관람시간 10:30~17:00 (입장마감 16:30)
▶ 관람료 무료
▶ 휴관일 월요일 (공휴일 익일, 명절 연휴 휴관)
▶ 교통편 지하철 3호선, 분당선
수서역 6번출구 도보 15분
시내버스 402, 4419, 2412 (쟁골마을 하차)
마을버스 강남03, 강남06, 강남06-1
(쟁골마을 하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285번지 | ▶ 전 화 : 02-445-8486 | ▶ 홈페이지 : www.tanheo.org

書心칼럼

사군자와 문인화의 출발



향기로운 날 630x360mm

최근 자주 가는 인사동에서 우연히 눈에 띄는 전시회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도자기 그림처럼 초벌구이 도자기에 그림을 입힌 것이 아니라 화선지처럼 평평한 널따란 도판陶板에 수묵의 농담과 번짐까지 고스란히 담아낸 도자화전陶瓷畫展이었습니다. 이는 기존 우리의 전통 도자화가 미치지 못한 수묵의 농담과 번짐까지 담것 그린 후 고온의 가마불에 구워낸 보기 드문 작품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작가는 20여 년 이상 도전과 실패의 나날을 딛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을 것입니다. 최적의 불의 온도까지 알아내어 이른 결과로 아마 우리 미술계 최초로 도자화 장르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초란 사전적 의미로 발견·발명·새로운 길·새로운 방법·새로운 개념을 의미합니다. 문인화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 새로운 개념을 정립한 옛사람들의 자취를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군자인 매·란·국·죽은 그림에 앞서 먼저 시문詩文의 소재로 등장하였습니다. 대나무에 대한 최초 기록은 『시경詩經』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주나라 무공武公의 높은 덕과 학문, 그리고 인품을 대나무에 비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초는 전국시대 초나라 굴원屈原이 그의 詩 <이소離騷>에서 '난향을 즐겨 넓은 지역에 蘭을 가득 심었다'는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화는 육조六朝시대 도잠陶潛이 관직 생활을 접고 돌아오면서 지은 <귀거래사歸去來辭>에 '집에 와보니 폐허가 된 골목에 소나무와 국화가 그대로 있어 반겼

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화는 '梅를 아내로 삼고 鶴을 자식으로 삼았다(梅妻鶴子)'는 송나라 시인 임포林逋가 그 매력을 여러 곳에 많은 글로 남겼습니다.

사군자 관련 최초 그림은 전해지는 작품이 거의 없어 기록에 의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매화는 북송 때 화광산華光山선승인 중인仲人이 묵매를 잘 그렸으며, 난초는 남송말의 정소남, 국화는 남송 때부터 시작되어 황전黃筌, 조창趙昌, 서희徐熙 등이 그렸고, 대나무는 여러 說이 있는데 당唐의 현종을 비롯하여 왕유王維, 오도자吳道子 등이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사군자라 명명한 것은 명명의 진계유陳繼儒가 지은 『매란국죽사보梅蘭菊竹四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군자를 포함한 문인화라는 용어는 명의 동기창董其昌이 그의 저서 『화선실수필 畫禪室隨筆』에서 당의 왕유王維를 문인화의 시조로 꼽으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왕유가 관료이면서 학식이 높고 시·서·화 삼절三絶에 능할 뿐만 아니라 성품 또한 고결하고 청아하여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작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길·새로운 방법·새로운 개념을 추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들 모두 자신을 한껏 불태운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높은 이상과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마저 쉬지 않고 연소시키는 사람만이 주위를 밝게 비추는 하나의 촛불일 수 있습니다.

글: 그림 / 김외자(문인화가)

마음 산책

이럴 땐 미국이 부럽다

쇼핑을 싫어하는 나는 특히 쇼핑에 있어서는 인터넷의 혜택을 많이 보고 산다. 수퍼마켓에서 음식물 살 때를 빼곤 거의 전부를 인터넷쇼핑으로 해결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쇼핑은 도우미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포장해서 반품하는 일이 생길 땐 괴롭기도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의 일이지 서울에 가면 백화점이나 가게에 나가서 쇼핑을 하게 된다. 요즘은 메르스MERS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사망하고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뉴스를 보면서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의 차이를 생각하다 보니 문득 쇼핑문화로까지 생각이 이어지게 되었다.

미국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디를 가든 줄을 서서 참을성 있게 차례를 기다리는 걸 배운다. 사십년 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린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도 목소리 큰 사람이 앞으로 밀치고 들어오는 일이 많아 짜증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물론 지금은 한국도 많이 달라졌다. 특히 은행 같은 데 가면 번호표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차례를 지키게 되는 것 같다.

미국사람들은 이런 행동이 습관화 되어 있어서 번호표가 없건, 줄 설 공간이 좁아도 상관하지 않고 줄을 선다. 줄이 흐트러져 있을 때도 자기 차례를 기억하고, 불확실할 땐 양보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질서정연한 모습에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그늘 없는 미덕은 없는 것 같다. 쇼핑을 하러 갔을 때도 미국인들은 줄을 서서 기다린 후 자기 차례가 되면 직원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요구한다. 맨 먼저 도착한 손님 질문이 끝날 때까지 나머지 손님들은 자기 차례가 오길 눈치를 보면서 기다려야 한다.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도 모두 편하지 않다.

거리에서 호떡 하나 사 먹는 정도라면 '순서대로'가 효율적이지 몰라도 컴퓨터나 옷을 사러갔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곤란하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인터넷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것 같다.

아마 한국에서도 인터넷시장이 성황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순서대로' 받는 서비스의 불편함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 사람들은 쇼핑할 때 기다리지 않고 즉시 서비스 받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직원이 한꺼번에 여러 손님들을 상대해 줄 수 없다면 유능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미국이나 서구에서 선호하는 행동양식은 직선적이며 단계적(step-by-step)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단계씩 차례대로 일을 처리한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하려다가 기다리는 데 허비하는 시간 때문에 짜증스러울 때가 많지만 그래도 '비효율적인' 생활습관의 강점을 많이 보아 왔다. 바로 긴급사태가 벌어졌을 때다.

천둥 번개로 신호등이 고장 나도 교통은 마비되지 않는다. 사거리에 멈춰 서 있는 차들이 정확하게 '순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십년 전 쯤, 미국 3개 주에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뉴욕시를 포함한 여러 도시의 2백만 인구가 전기가 끊어진 상태에서 퇴근해야 했던 일이 있었는데, 기막히게도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순서대로, 단계대로' 사는 '비효율적인' 생활방식의 막강한 힘이다. 이 힘으로 미국은 그 무섭다는 에블라를 거의 완벽하게 봉쇄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가끔 미국이 부러울 때가 있다.

글 / 우태욱(불명·청량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Millersville주립대 심리학과 교수)



청소년 집중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2학년 1학기가 끝나갈 무렵 성적표를 받자 나는 실망하였다. 공부한 만큼의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이번 시험만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항상 나타났던 것이었다. 내신 성적이 점점 중요한 시점에서 나는 이번만큼은 내 결과에 대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이유를 철저히 분석해 보기로 했다.

내 공부습관에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는 시험 당일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 것인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어 내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다. 하지만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바로 '불안'과 '집중력 부족'이었다. 공부시간이 많긴 했지만 그 시간 동안 제대로 집중하지 않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마인드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항상 불안감에 안절부절못한 채로 시험에 응시한 적이 많았다.

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학교 건너편 건물에 걸린 현수막을 하나 발견하였다. 바로 청소년 집중 명상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었다. 평소 엄마께 명상의 긍정적 효과에 관해 많이 얘기를 들어왔던 터라 명상을 통해서라면 내 집중력을 높이고 불안감을 안정의 상태로 탈바꿈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금강선원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기초참선 집중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

집중 명상 프로그램은 탄허기념박물관에서 매주 토, 일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씩 8주 동안 총 15회로 진행

되었다. 토요일에는 헤거스님의 법문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는데, 헤거스님께서는 매주 새롭고 뜻 깊은 이야기들로 청소년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셨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은 "주인의식을 가져라"였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맡겨지더라도 책임감을 갖고 주인처럼 열정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항상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결국 주인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헤거스님의 말씀을 들은 후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게 되었다. 그 결과 어느 일이트든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고, 책임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2학기 회장이 되는 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명상 첫 주째에는 하루에 10분씩 명상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집중표를 바라보며 내 마음의 모든 신경을 하나로 집중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힘들었다. 자꾸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집중을 흐트렸다. 그때 법사님은 명상할 때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중요한 것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얼른 다시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 후 명상시간은 10분에서 15분, 20분, 30분까지 늘어났고, 난 점점 한 자리에 앉아 오랜 시간동안 집중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다. 명상할 때 무자정 한 곳을 바라보며 마음을 집중하려 하기보다 하나의 주제를 정하

고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을 하면 집중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나는 평소 깊이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던 고민들을 적어두고 명상시간에 고민함으로써 해결방안을 찾았다.

명상 프로그램이 4주째 진행되었을 무렵, 충남 보령사 보탑사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다녀왔다.

템플스테이를 갔다 온 후 맑은 정신으로 명상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었고, 명상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내가 드디어 내 단점을 극복했다는 것을 느꼈다. 불안함이 사라지고 마음에 안정을 찾았으며, 조급해하기보다는 인내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몸에 밴 것이다.

명상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나는 아침 10분, 저녁 20분씩 명상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아침에는 그 날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저녁에는 헛되이 보낸 시간이나 집중하지 못했던 시간에 대해 반성하였다.

명상이 내 생활의 일부로서 자리 잡음으로써 나는 중요한 시험을 보기 전에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천천히 심호흡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을 터득했다. 명상은 단지 집중력을 강화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실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다.

글 / 서지희(경기여고 3학년, 제9기 청소년기초참선반)

* 이 글은 2014년 제9기 청소년 기초참선반 과정을 수료 한 당시에 쓴 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선월 소식

(사)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제6회 학술세미나 개최



지난 5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사)아시아 태평양 공동체(이하 아태공) 제6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한승조 이사장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세미나는 객관적 역사적인 입장에서 정치 관여의 원리원칙을 밝히는 세미나로서, '한국에서 정치와 종교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란 주제로 각 종교(개신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의 정치와 종교에 대한 발제와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하안거를 시작하며

지난 6월 1일(월) 하안거 결제일을 맞아 금강선원 참선반은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참선수행 및 숲길걷기와 이완명상 등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선반은 매월 첫째주 월~화요일마다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집중수행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안거 해제일까지 더욱 가행정진하길 바랍니다.

의료광고 의료광고심의필 제 141212-중-66396호

아이리움안과의원
강남센터빌딩 7층
강남역 2번 출구 지하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료내용

백내장 수술

노안교정

라식·라섹 수술

렌즈삽입술

보여주는 안과

EYE REUM 아이리움안과의원

아이리움안과의원 과 상담하세요.

상담·예약 | 02)3420-202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 (역삼동 825-13) 강남센터빌딩 7층 아이리움안과
진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전법회 안내

수요경전법회 금강경 아보송 매주(수)
금요경전법회 대승기신론 매주(금)
일요가족법회 탄허사상특강 매주(일)
▶ 모든 경전법회는 오전 10시30분입니다.

교육과정 안내

선하불교대학 매주(월) 오전10시 30분
성인기초참선 매주(월) 오후15시 00분
청년불교대학 매주(토) 오후14시 00분
청소년기초참선 7월18일~9월6일 8주(토일 오후 2시)
어린이명상학교 매주(일) 오전10시 30분
청소년 10년 중평지대과 5월2일~12월 5일(토)오후2시

문화특강 안내

수요한문반 매주(수) 오후 2시
기초한자반 매주(금) 오후 1시
서예반 매주(월) 오후 2시
합창반 매주(금) 오후 1시
민요반 매주(금) 오후 1시

기도 안내

일년기도, 인등기도, 초하루기도, 초삼일기도
보름기도, 지장재일기도, 백중기도, 신년3일
기도, 신년천도재, 입춘기도, 소원성취기도(수
능백일 및 각종 축원, 21일 소원성취기도, 각
종 백일기도)

제사 안내

49재 / 초재 막재 / 막재
기제사, 명절합동차례(설날, 추석), 천도재

선원 일정(6.26~7.25)

6/26(금) 금요법회(대승기신론2강)
6/27(토) 제3기 청년불교대학
청소년10분명상지도자과정
금강경독송집중정진
6/28(일) 일요법회(탄허사상특강37강)
청소년 참선 심화반, 어린이명상학교
6/29(월) 제40기 선하불교대학
제26기 성인기초참선 졸업
7/01(수) 수요법회(금강경아보송 14강)
소원성취 21일 기도입재
7/03(금) 금요법회(대승기신론3강)
지장재일
7/04(토) 제3기 청년불교대학
제10기 청소년 참선 학부 오리엔테이션
7/05(일) 일요법회(탄허사상특강38강)
청소년 참선 심화반, 어린이명상학교
7/06(월) 제40기 선하불교대학 졸업
7/08(수) 수요법회(금강경아보송 15강)
7/10(금) 금요법회(대승기신론4강)
7/11(토) 제3기 청년불교대학
7/12(일) 일요법회(탄허사상특강39강)
청소년 참선 심화반, 어린이명상학교
7/15(수) 수요법회(금강경아보송 16강)
7/16(목) 초하루기도
7/17(금) 금요법회(대승기신론5강)
7/18(토) 제10기 청소년 기초명상 개강(박물관)
제3기 청년불교대학
7/19(일) 일요법회(탄허사상특강40강)
청소년 참선 심화반, 어린이명상학교
제10기 청소년 기초 명상(박물관)
7/22(수) 수요법회(금강경아보송 17강)
7/24(금) 금요법회(대승기신론6강)
7/25(토) 금강경독송집중정진
제3기 청년불교대학
제10기 청소년 기초 명상(박물관)

해거스님 강의 TAPE

금강경(육조주석).....35개
금강경(종경주석).....30개
금강경(아보송).....38개
육조단경.....46개
원각경.....33개
유식30송.....32개
유식30송(2011).....20개
유식30송(2013).....25개
일체유심조.....36개
선요.....33개
승만경.....24개
한산시.....16개
법화경약의.....5개
사성제품.....6개
초발심자경문.....11개
태고보우선어록.....15개
능엄경55위.....12개
육바라밀.....8개
반야심경.....4개
유마경.....14개
야마천공계찬품.....7개
신심명.....8개
목조명.....7개
심우도.....5개
참나(좌선의).....8개
화엄경(2011).....65개
선가귀감(2013).....25개
서문.....26개
천수경.....12개

해거스님 강의 CD

금강경(육조주석).....35장
금강경(종경주석).....30장
금강경(아보송).....38장
육조단경.....46장
원각경.....33장
유식30송.....32장
유식30송(2011).....20장
일체유심조.....36장
선요.....33장
천수경.....12장
능엄경55위.....12장
반야심경(달마해설).....15장
반야심경.....4장
목조명(초파일특강).....6장
신심명.....4장
태고어록.....12장
법성계.....5장
관음시식.....3장
서문.....26장
맹자진심장(박완식교수).....45장

◎영가집특강 출시.....15장
(영가 현각선사의 문집)

☎문의 : 교무팀 02-445-8484

☎계좌 : 국민 474501-01-011180 금강선원

보시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시 금 | 전주현 최선희 장원순 이원형 서동수 하도혁 이은재 김경표 이재현 무주상(2명) 천화당한의원
보 시 물 | 능지행 장기팔 동명한의원 명덕꽃집

永久위패 봉안 동참

일반영구위패

위패183 신청인 심정자/ 봉안인 이향석 이용미 영가
위패188 신청인 최옥부/ 봉안인 최인우 김순덕 영가

위패189 신청인 최옥부/ 봉안인 최성원 빈덕심 영가
위패190 신청인 최옥부/ 봉안인 장정자 영가

신한은행 100-029-930686 예금주 금강선원
문의 : 금강선원 불사팀 (02) 445-8484

위패182 신청인 손지영/ 봉안인 문두식 권태형 영가

대방광불화엄경 석경불사

신한은행 100-029-930686 예금주 금강선원
문의 : 금강선원 불사팀 (02) 445-8484

품 제 목 실 판

십 지 품 - 황 보 원
십 인 품 - 박 영 숙
아 승 지 품 - 김 중 화

구 좌 동 참

1 - 7 0 5 흥 무 용
1 - 7 0 6 황 숙 희

1 - 7 0 7 흥 중 국
1 - 7 0 8 기 지 현
1 - 7 0 9 흥 중 혁
1 - 7 1 0 배 선 주
1 - 7 1 1 흥 주 미
1 - 7 1 2 흥 서 연
1 - 7 1 3 흥 호 인
1 - 7 1 4 박 수 복
1 - 7 1 5 요 진 스 님

1 - 7 1 6 최 윤 지
1 - 7 1 7 김 치 봉 사 팀
1 - 7 1 8 이 안 규
1 - 7 2 0 고 용 석
1 - 7 2 1 송 석 현
1 - 7 2 2 송 석 원
1 - 7 2 3 연 등 팀
1 - 7 2 4 김 진 환
1 - 7 2 5 양 윤 정

1 - 7 2 6 길 흥 은
1 - 7 2 7 김 한 근
1 - 7 2 8 김 석 래
1 - 7 2 9 정 지 연
1 - 7 3 0 김 동 욱
1 - 7 3 1 최 미 영
1 - 7 3 2 황 상 희
1 - 7 3 3 수 민 스 님
1 - 7 3 4 조 평 호

1 - 7 3 5 이 중 수
1 - 7 3 6 나 정 환
1 - 7 3 7 김 병 익
1 - 7 3 8 최 미 욱
1 - 7 1 9 김 건 영 가



제5회 금강경강송대회 참가 신청서(개인)

NO. 2015 -

성명	한글	주민번호 (앞부분)	반명함판 사진
	한자		
법명	한글	성별	남, 여
	한자		
연락처 핸드폰	-	E.mail	
집주소			
재적사찰			
<p>※ <u>金剛經</u>을 암송하게 된 동기</p>			
<p>※ <u>金剛經</u>을 암송한 후의 소감</p>			
<p>참가비 : 3만원 계좌 번호 : 신한은행 100-028-878838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p>			

금강경강송대회에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참가자 (인)

제5회 금강경강송대회 참가 신청서(단체)

NO. 2015 -

단체명	총 인원: (명)	
단체 성격	가족팀 / 도반팀/ 기타 ()	
단체 특징	단체명을 만들게 된 이유, 단체 특징, 단체 자랑거리를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예) 우리 단체는 랩으로 금강경을 독송해요, 가족구성이라 어린아이도 있어요 등등	
재적사찰		
이름	참가자 전원의 명단을 적어주세요.	
단체 대표자	단체 대표자 이메일	
단체 참가자	참가 신청서 제출하실때 지정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정해졌을 경우,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표자 연락처	대표자 이메일	
지정분	지정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자유분
<p>단체참가팀 유의사항 : 전체 합송시간 3분 이내를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참가비 : 3만원 계좌 번호 : 신한은행 100-028-878838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p>		

금강경강송대회에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참가자 (인)

제5회

금강경 강송대회

2015년 10월 17일 (토)
장 소 : 탄허기념박물관

탄허대종사의 눈으로, 좋은 책 『금강경』 읽기 프로그램

국태민안을 발원하던 유구한 민족문화인 경전강송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참뜻을 널리
펼쳐 보살사상 실천과 만일수행결사운동의 보급에 이바지할
금강경 강송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응시자격** 성인 일반부
학생부 : 초, 중, 고등, 대학생 (학생증 첨부)
- 응시부문** 개인전 : 외워 쓰기, 암송
단체전 : 합송 *개인전과 단체전에 중복 응시 가능
수행수기
- 접수기간** 원서접수 : 2015년 7월 1일 ~ 9월 30일 (선착순 접수)
- 지 원 서** 소정 양식(우편 접수 시 사진 3×4 부착)
※ 지원서 다운로드 : 탄허기념박물관, 금강선원 홈페이지(www.geumgang.org),
금강선원 다음카페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전 형 료** 개인, 단체 : 3만원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계좌 번호 : 신한은행 100-028-878838 대한불교조계종금강선원
단, 학생은 무료 (학생증 제출), 수행수기 부분만 무료.
- 접수방법** 1. 방문 및 우편 접수 : 금강선원, 탄허기념박물관
• 금강선원 : 서울 강남구 개포로 82길 11(개포2동 186-3) 삼우빌딩 4층
TEL: (02) 445-8484 / FAX: (02) 445-8034
• 탄허기념박물관 : 서울시 강남구 방고개로 14길 13- 51
TEL: (02) 445-8486 / FAX: (02) 445-8481
2. E-mail 접수 : keumgang-sw@hanmail.net
- 대회상금** 성인 일반부 : 대상 1,000만원
금상 300만원 | 은상 200만원 | 동상 100만원
학생부 : 최우수상 100만원 | 우수상 30만원 | 장려상 20만원
단체전 : 단체상 100만원(3팀)
*각 부문에 특별상 수여.

- 시험 유형 및 출제**
- 개인전** 필기 : 금강경 32분 중 지정분 (당일 공개 추첨) 외워 쓰기
학생부 (초, 중, 고등, 대학생) 지정분 : 1분, 7분, 12분, 17분, 31분
대학생의 경우 성인 일반부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표준 교재 - 금강선원 발행 『금강경독송집』, 조계종 표준본
강송 : 암송, 운음, 소리 크기
※ 한자 필기시 가산점 부여
개인전 결선은 필기와 강송 심사에서 우수자 선정 후 질의응답으로 최종 순위 평가
- 단체전** 팀 인원 : 5명 이상 (도반, 가족, 직장 동료 등...)
합송 : 지정분(접수시 지정분 배부)과 자유분(팀별 자유선택)
※ 전체 합송시간 : 3분 이내 -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중국어 지원 가능
- 대회일정** 08:30 입실 완료
8:30~09:00 식전 의전, 필기 분 공개 추첨
1교시(09:00~09:50) <개인전> 외워쓰기
2교시(10:10~12:00) <개인전> 강송(암송)
점심시간 (12:00~13:00)
3교시 (13:00~14:10) <단체전> 단체 합송
4교시 (14:20~15:10) <개인전> 결선
15:20 이후~ 결과발표 및 시상식 / 수행수기 발표 / 순당일례

※ 제세공과금(22%)는 본인부담이며, 대회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상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방이나 원거리 참가자 중 희망하시는 분은 선원에서 숙박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기타 상세한 문외는 금강선원 홈페이지나 대표전화 02)445-8484로 받습니다.